



518명의 교향곡 '부활' 리허설

일반인, 부산 한울림합창단 등 타 지역 합창단이 모두 참여, 5·18의 뜻을 함께 나누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주회는 17일 광주문예회관과 18일 옛 전남도청 앞 특설무대(우천시 취소)에서 열린다.

광주시립교향악단과 시민합창단 등 518명이 참여하는 5·18 30주년 기념음악회 말라 교향곡 2번 '부활' 리허설이 지난 15일 광주 살레시오여고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지역 합창단과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일반인, 부산 한울림합창단 등 타 지역 합창단이 모두 참여, 5·18의 뜻을 함께 나누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주회는 17일 광주문예회관과 18일 옛 전남도청 앞 특설무대(우천시 취소)에서 열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혈관 투입 '미세 로봇' 실험 성공

전남대 로봇연구소 세계 첫 개발...심장질환 치료 신기원

인류 건강 최대의 적 '심장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마이크로로봇이 전남대 로봇연구소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전남대 로봇연구소(소장 박종오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는 16일 "세계 최초로 지름 1mm·길이 5mm의 마이크로로봇이 강한 혈류와 혈압이 있는 실험용 돼지의 혈관에서 이동하고, 움직임을 조작해 막힌 혈관을 뚫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실험은 지난 13일 전남대 의대 심혈관센터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인터뷰 2면)

이 같은 연구 성과는 애초 지난 2005년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오는 2020년 등장할 것으로 예측했던 시점을 무려

10년이나 앞당겼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진은 수술 전 컴퓨터 단층촬영(CT) 영상을 이용해 실험돼지 혈관의 3차원 형상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마이크로 로봇의 이동경로를 수술 전에 설정했다. 이어 주사기를 통해 실험돼지의 혈관에 로봇을 주입했으며, 수술시 로봇의 혈관 내 이동 모습을 X-선 형광투시기로 파악해 로봇의 위치를 나타냈다.

돼지혈관에 주입된 로봇의 이동은

전자기 구동장치로 조정되며, 필요에 따라 로봇 스스로 이동하거나 원격조종된다. 로봇은 전자기 구동을 통해 1초당 20~30회 고속회전하며 막힌 혈관을 뚫는 데 성공했다.

이번 실험으로 마이크로로봇의 혈관 치료 가능성을 입증했으나, 실제 실험돼지의 혈관에 로봇을 주입했으며, 수술시 로봇의 혈관 내 이동 모습을 X-선 형광투시기로 파악해 로봇의 위치를 나타냈다.

이후 임상실험을 통해 2020년께 상용

화한다는 목표다.

이번 연구는 2007년 9월부터 2014년까지 7년간 203억원을 들여 진행되는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 '혈관치료용 마이크로로봇 개발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의 최종 목표는 심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전달과 수술용 초소형 로봇 및 관련기술 개발을 통한 '만성관상동맥질환 및 혈전 치료'다.

/최희정기자 chae@kwangju.co.kr

무상급식·교원평가 대부분 찬성

시·도 교육감 후보 12명 주요 정책 비교

6·2 지방선거 광주·전남 시·도교육감 후보들은 무상급식과 교원평가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공개는 반대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 하지만 일제고사 참

여와 야간자율학습 등에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관련기사 4·5면> 광주일보가 시·도 교육감 후보 12명에게 20개의 지역교육 이슈에 대해 서면답변을 받은 결과, 무상급식과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1명을 제외한

11명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장휘국·이정재 시 교육감 후보와 장만채·곽영표 도 교육감 후보 등 4명이 반대했다. 나머지 후보들은 찬성은 하되 성적공개 등을 통한 학교·학생 서열화 방침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방선거 후보자 명단·얼굴 11~14면 ... 쓱 뽑아 보세요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튼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과 교육의 요망!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광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알림

VENICE GLASS FANTASIA

▶특집기사 16면

베니스 유리공예 국내 첫 전시

광주서 6월19일~8월22일

이탈리아 베니스의 마법 같은 유리 공예 명작을 선보이는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 특별전이 오는 6월19일부터 8월22일까지 광주 문화예술회관 전시장(구 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광주일보사와 광주시립미술관이 주최하고 주한이탈리아대사관,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에는 세계 최고의 유리공예 거장 피노 시노레토(Pino Signoretto)의 대표 작품 등 150여 점이 선보입니다. 또 '유리의 도시' 베니스 무라노 섬에서 400여년간 예술 혼을 이어온 스키타보(Schiavon) 가문의 대표 작가들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유리 작품을 선사합니다. 전시장에서는 매일 베니스 유리공예 장인이 작품을 실제 제작하며,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해 보는 코너도 운영됩니다.

유리공예의 모든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 통해 해설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매일 마련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10년 6월 19일(토) ~ 8월 22일(일)
- 장 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장(구 광주시립미술관)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8시
- 관람문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사** **gma** 광주시립미술관
주관: **INFINITY** 인피니티
후원: 주한이탈리아대사관 Embassy of Italy, 주한이탈리아문화원 Italian Cultural Institute - Seoul,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여야, 광주·전남서 '5·18 구애'

향정 30주년 맞아 지도부 총집결

6·2 지방선거를 보며 남기고 5·18 광주향정 30주년을 기점으로 여야 모두 대대적인 광주·전남 공략에 나선다.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은 17일 수원에 이어 18일에는 광주에서 정몽준 대표 주재로 중앙선대위 선거대책회의를 개최, 광

주·전남지역 민심 잡기를 본격화한다. 현장 회의를 통해 최일선 민심을 점검·확인하고, '실폐한 전 정권 책임론' 공세를 강화해 보수 성향의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하는 한편 친노 후보에 반감을 가진 중도층까지 끌어들이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전체가 18일 열리는 5·18 기념식에 참가하는 등 17~19일 지도부가 무소속과 접전 지역을 돌며 민주당 바람몰이를 시도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5·18을 기점으로 공천 잡음으로 흔들리는 지역 분위기를 다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jpkp@kwangju.co.kr

순천·여수·광양의 중심

중흥S-클래스

전분주택 개관중

공급 100% 인수도 확정

5000㎡ 이상

5000㎡ 이상

5000㎡ 이상

5000㎡ 이상

순천·여수·광양역 중심, 명품신도시
순천 신대지구 중흥S-클래스

1588-2110

순천 신대지구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2기 특채분당

304-728-7220